

논리적 해석을 위한 제언

— 미국 식품의약청 동물사료규제법 개정에 관한 2008년 4월 23일자 보도자료 영문의 한국어 번역¹⁾ —

윤 효 녕
(단국대)

1. 시작하는 말

2008년 5월과 6월, 대한민국은 국민 다수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 때문에 들끓었다. 이 와중에서 한국 협상단이 4월에 수락한 수입 조건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말 번역을 놓고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가 된 영어 문장이 하나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U. 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이른바

1) 이 논문의 세부 논점들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이신 석경징 선생님과 2008년 6월 10일 세미나를 통하여 처음보다 더 가다듬어졌다. 특히 2.1.1에서 자연 언어와 논리 언어간의 차이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 것은 석 선생님의 조언 덕분이었으며, 이는 2.1.3의 논의를 더 구체화하는 촉매가 되었다.

강화된 동물 사료 조치에 관한 확정 법령을 2008년 4월 25일자로 공포하였는데, 그보다 이틀 전인 23일에 법령의 골자를 요약한 보도 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재한 바 있다. 그중에서 우리말 번역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장은 이렇다.

[문1]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 (FDA News)

한국 정부는 2008년 5월 2일자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발표 「美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에서, “협상 결과에 따라 SRM[Specified Risk Materials, 특정 위험 물질]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생산된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클 것 이라는 질의(“문1”)와 관련하여 이렇게 답변했다.

모든 광우병 감염 소,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있을 수 있는 뇌나 척수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 (「노컷뉴스」 2008.05.02. “문2 에 대한 답)

이 답변을 요약하면, 미국의 강화된 사료 조치로 인해 광우병 교차 감염의 위험성이 감소했으므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4월 25일에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송기호는 미국 식품의약청의 확정 법령이 원래 제출되었던 법안보다 강화된 것이 아니라 후퇴했으며 농림수산부의 발표와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후퇴한 수정안에 따르면 30개월령 미만의 소의 뇌와 척수는 여전히 닭과 돼지의 사료로 공급된다. 그리고 30개월령이 넘는 소라고 해도 눈, 머리뼈, 척추 등의 광우병 위험물질도 동물 사료로 공급된다. 그리고 다운너(downer)라고 불리는 주저앉은 증세의 소라도 뇌와 척수만을 제외

한 나머지 광우병 위험물질까지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공급할 수 있다.
(「프레시안」 2008.04.25.)

이로 인해 사태가 불거지자 5월 12일에 결국 농림수산식품부는 [문1]을 오역하여 인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30개월미만 소라 하더라도(even if the cattle[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로 받아들이고 지난 2일 기자회견 문답자료에서 ‘30개월미만 소도 사료사용을 금지한다’고 인용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안이라면(unless)’을 ‘~하더라도(even if)’로 잘못 번역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 2008.05.12.)

이후로 이른바 오역 파문은 5월 말까지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주요 매체들은 정부의 오역문과 함께 수정된 번역문들을 앞 다투어 게재하였다.

이미 알려진 정부의 오역을 이 시점에서 특별히 문제 삼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필자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심지어 매체들에 게재된 이른바 수정된 번역문들 가운데서도 [문1]에 대한 정확한 번역문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정확함이라 함은 무엇보다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서 개념들의 논리적 관계가 정확한 것을 뜻한다. 딜러(Hans-Jürgen Diller)와 코르넬리우스(Joachim Kornelius)는 출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에 적합한 번역이 수행되기 위한 등가성으로 “동일한 지시, 동일한 서술, 동일한 발화수반행위 (지광신 13)를 들고 있는데, [문1]의 경우는 “대상을 서술 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동일한 명제내용을 갖는 (12) 지시와 서술의 동일성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수정된 번역문들이 원문의 의미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중의 어떤 것도 그 범주를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이렇다. 첫째, [문1]에서 의미 요소들의 조건에 따르는 결과와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해석과 번역문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그에 의거하여, 매체들에 게재된 기존의 번역들이 지닌 오류의 현상과 원인을 사례별로 밝히고자 한다.

2. 본론

2.1 준비

2.1.1 방법론

[문1]은 and, or, not, if... then 등 진리 조건의 논리적 연결사들에 필적하는 언어적 연결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자연 언어인 [문1]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문장의 의미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관계를 상위언어(meta-language)인 논리 언어로 전환할 것이다. 상위언어란 “모든 언어의 의미론적 단위와 규칙들을 기술하는 (Saeed 7) 도구이다. 사용될 기호들은 [표1]과 같다.

기호	구조	의미
~	~p	not p: p의 부정(否定, negation)
^	p^q	p and q: 연언(連言, conjunction)
∨	p∨q	p or q: 선언(選言, disjunction)
→	p→q	p이면 q이다: 조건언
≡	p≡q	p이면, 그리고 p이어야만 q이다
(), { }, []	p(q), p{q}, p[q]	q는 p의 하위 연산 단위이다

[표1]

다음으로, 그렇게 전환된 의미 요소들의 관계를 “드모르간(Augustus De Morgan)의 법칙(여훈근 178)과 “부울(George Boole)대수(368)의 논리 법칙에 의해 연산하여 결과 값을 구하고, 그 값을 다시 자연 언어로 전환할 것이다. 그러면 [문1]에서 의미 요소들의 관계가 갖는 진리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 언어를 논리 언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연 언어의 의미 요소들을 논리 언어의 의미 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각 요소의 영역이 명확해야만 요소들의 관계 연산도 그만큼 명확하게 된다. 자연 언어는 특정 맥락(context)에 위치해 있어서 그 맥락에 의해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반면,

논리 언어는 보편적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자연 언어의 의미 영역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를 보편적 논리 규칙에 대입할 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자는 [문1]의 어휘들이 지니는 사전적 의미를 맥락에 의해 규제함으로써 논리적 의미 단위들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화자와 청자는 발화의 의미를 구축하고 해석할 때 맥락에 의존 (Saeed 181)하기 때문이다.

자연 언어를 논리 언어로 완벽하게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또 논리가 자연 언어를 자동적으로 해석해내는 도구인 것도 아니다. 다만 자연 언어인 [문1]을 조건언의 구조에 대입하여 진리 값을 구하면, [문1]에 대한 어떤 해석이 그 진리 값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틀렸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문1]에 대한 기존 해석과 번역문들의 오류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2.1.2 [문1]의 구조

[문1]의 통사 구조는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is also prohibited 를 기본으로 여기에 두개의 “부가어(adjunct) (Jespersen 91)가 첨가된 것이다.

[문2]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부가어1]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부가어2]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

[부가어1]은 “후치한정사(postnominal modifier) (Declerk 29)로 주부의 명사 “cattle 을 한정한다. 그런데 [부가어1]은 “which ar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때 which이하의 관계대명사절은 의미상으로 선행사 cattle의 의미 영역을 “제약, 한정, 또는 제한 2)하는 조건의 기능을 한다. 커엄(George O. Curme)은 “if로 도입되는 조건절 대신에 관계대명사절을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다 (326)고 말한 바 있는데, [부가어1]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이렇게 [부가어1]은 소들의 [조건1]을 명시한다. 그리고 [부가어2]는 술부의 동사 “prohibited 를 한정하며, 금지의 [조건2]를 명시한다.

결과적으로, [문2]는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is also prohibited 에 [조

2) “condition, *n* I.5. A restriction, qualification, or limitation. (Oxford English Dictionary)

건1]과 [조건2]가 첨가된 것이다.

[문3]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조건1][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조건2][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

2.1.3 [조건1]에서 기본 요소들의 의미 영역과 부정어 “not”의 영향권

[조건1]은 조건의 기본 요소들인 “inspected”와 “passed”, 요소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사 “and”, 그리고 요소들과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어 “not”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not”의 영향권(scope)에 드는 것이 “inspected”인지 “inspected and passed”인지 통사론적 중의성(ambiguity)이 있다. 즉 [조건1]의 내부 구조가 [{not inspected} and {passed}]인지 [not {inspected and passed}]인지 통사론적으로만은 결정할 수 없다. 이런 경우의 미론적 분석을 해보아야 한다.

의미론적 분석은 단어의 사전적 정의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사전적 정의는 일반적 정의이므로, 구체적 문장에서는 그 정의의 모든 의미 영역이 유효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조건1]의 기본 요소들인 “inspected”와 “passed” 각각의 원형 inspect와 pass의 사전적 의미 영역도 명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문1]을 둘러싼 맥락을 고려하면, 이 문장에서 이 두 어휘의 의미는 구체화된다. 사이드(John I. Saeed)는 의미 해석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맥락의 종류로 물리적 맥락, 담론적 맥락, 그리고 배경·상식적 맥락을 든다(190-92). 담론적 맥락이란 문장을 둘러싼 언어적 맥락, 즉 문맥을 뜻하고, 물리적 맥락과 배경·상식적 맥락이란 언어외적 맥락을 뜻한다. 물론 후자의 두 가지가 전자인 문맥에 담겨 있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맥락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 하는 것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 보도자료 전체 중에서 [문1]이 속한 단락을 살펴보기로 한다.

광우병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인자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가장 높은 위험성을 가진 조직들은 동물 사료로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의 고위험성 부위들은 월령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이다.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의 경우 광우병 위험성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FDA News)

주지하다시피 [문1]의 언어 내외적 맥락은 ‘광우병 교차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조건의 경우 소의 사체 부위를 다른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미국 FDA의 법률’이라는 환경이다. 이 문장의 모든 개념 영역은 그 환경을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inspect의 의미는 법률적 의미 영역으로 규제된다. 그리고 pass의 의미도 법률적 영역으로 규제된다. 다양한 의미들 가운데서 이에 가장 근접하는 각각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inspect

1. trans. To look carefully into; to view closely and critically; to examine (something) with a view to find out its character or condition; now spec. to investigate or oversee officially (*Oxford English Dictionary*)

pass

II. Transitive uses.

33.b. Said of a person or thing that goes satisfactorily through a test, trial, or examination: to undergo and come out successfully; to come up to the standard required by (the examiners or examination); to be allowed by. (*Oxford English Dictio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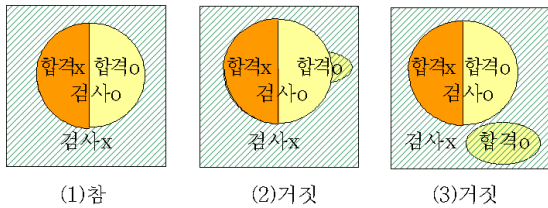
그러니까, 맥락에 의해 규제되기 전에 두 어휘가 갖고 있던 다양한 사전적 의미의 관계는 불명확하지만, [문1]에서 “passed 의 의미 영역은 “inspected (검사받은)의 경우로 한정된다. 가령, 소가 들판을 지나간다는 의미나 검사 문을 통과한다는 등의 뜻은 아닌 것이다. 딜러와 코르넬리우스가 번역의 의미론적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하듯이 “문맥에 의해서 다의적인 형태가 단일의미로 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어휘적인 애매성이 배제될 수 있는 것이다(지광신 42). 그래서 “passed 는 검사에 “합격 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문1]의 문맥에서

(1) 소가 “검사 받았다 함은 사람의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률적인 도

축검사를 받았다는 뜻이다.

- (2) “합격 했다 함은 도축검사를 받아 합격했다는 뜻이다. (가령, 투우 대회 같은 데서 합격했다는 의미는 이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합격 하지 못했다 함은 도축검사를 받았지만 합격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 (4) “검사 받지 않았다 함은 도축검사를 아예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관계를 시각화하면 [표2]와 같다.



[표2]

원은 검사받은 영역을, 그리고 원 밖의 빗금친 부분은 검사받지 않은 영역을 나타낸다. 검사받은 영역은 다시 합격한 영역과 합격하지 못한 영역으로 나뉜다. 즉 이 문맥에서는 “검사 와 “합격 이 부분관계(meronymy)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합격 은 “검사 의 부분어(meronym)가 된다.

“부분관계는 어휘목록에서 분류체계와 다소 유사한 위계적 분류를 나타내며, “부분관계적 위계 (Saeed 70)로 볼 때 “검사는 상위어가 되고 “합격 은 하위어가 된다. 그런데 상위어를 a, 하위어를 c라고 정의하여 “c가 a의 하위어이면 a는 c의 하위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이다 (이익환 108-09). 즉 “검사는 “합격 의 하위어가 될 수 없다. 또 “의미장의 관점에서 보면... 상위어는 하위어보다 더 포괄적이다 (119). [표2]의 (1)은 “검사의 외연이 “합격 의 외연을 포함하므로 참이다. 즉 (2)와 (3)에서 보듯이 “검사를 벗어난 “합격 의 의미 영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받지 않고서 합격 ({not inspected} and {passed})한다는 표현은 이 문장에서 의미를 성립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조건1]에서 “not 의 영향권은 {inspected and passed}이다.

2.1.4 [조건2]에서 “unless 의 영향권

“unless 의 영향권은 “the cattle ~ removed 이다.

2.1.5 [조건1]과 [조건2]에서 기본 요소들의 논리적 관계

[조건1]과 [조건2]의 하위 요소들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문4]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조건1][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조건2][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

“Unless 를 if not으로 바꿔 쓰면, [문4]의 의미 구조는 이렇게 된다.

[문5]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조건1][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조건2][if not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

존재한량(existential quantifier)을 \exists 로, 전칭한량(universal quantifier)을 \forall 로 표기하면, [문5]의 조건언을 이루는 의미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술어논리(predicate logic)로 전환할 수 있다.

- $\exists x\{Ct(x) \wedge I(x)\}$: (Cattle are) Inspected
- $\exists x\{Ct(x) \wedge P(x)\}$: (Cattle are) Passed
- $\exists x\{Ct(x) \wedge L(x)\}$: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 $\exists x \exists y\{Ct(x) \wedge BS(y) \wedge R(y)\}$: The Brains and Spinal cords (of Cattle) are Removed
- $\forall z \exists x\{Cc(z) \wedge Ct(x) \wedge H(z)\}$: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is proHibited

따라서 [조건1] $\equiv \exists x[Ct(x) \wedge \sim\{I(x) \wedge P(x)\}]$, 그리고 [조건2] $\equiv \exists x \exists y[Ct(x) \wedge BS(y) \wedge \sim\{L(x) \vee R(y)\}]$ 가 된다.

2.1.6 “Also 의 초점 요소

“Also 는 “첨가적 초점화 한정사(additive focusing modifier) (Huddleston 592)로서 통사론적으로 “prohibited 를 한정한다. 그런데 “only와 also의 의미 기여를 이해하려면 이들이 한정하는 통사론적 핵(head)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즉 이들이 의미론적으로 어떤 요소에 적용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586). 의미론적으로 “also 의 초점이 될 수 있는 후보 요소는 (1)“The entire carcass of cattle (소의 모든 사체 부위도 역시 금지된다), (2)“prohibited (역시 금지되기도 한다), 그리고 (3)unless 이하(∼이 아닌 경우에도 역시 금지된다)이다. 그런데 2.1.3에서 살펴본 문맥을 보면 [문1] 앞에 금지의 대상으로 이미 “가장 높은 위험성을 가진 조직들이 나왔으므로, [문1]에서 같은 자격으로 참가되는 요소는 주어이다. 그러므로 “also 에 의해 초점이 되는 요소는 (1)이다.

2.2 해법

2.2.1 드모르간 법칙에 의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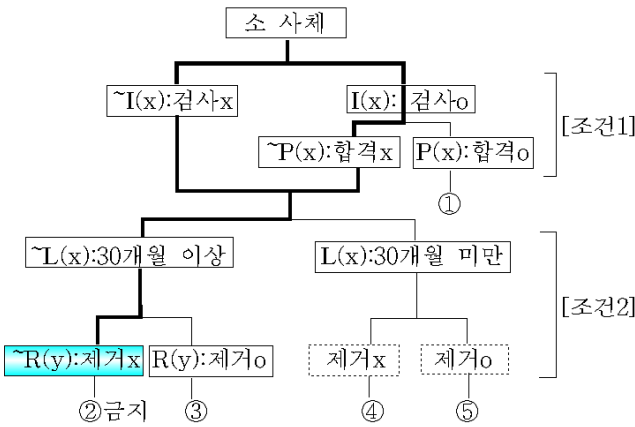
드모르간의 이원성 원리에 의하면, $\sim(p \vee q) \equiv \sim p \wedge \sim q$, 그리고 $\sim(p \wedge q) \equiv \sim p \vee \sim q$ 이다.³⁾ 2.1.5의 마지막 행에서 정리된 두 조건을 이 법칙에 의해 각각 연산하면, [조건1] $\equiv \exists x [Ct(x) \wedge \sim \{I(x) \wedge P(x)\}] = \exists x [Ct(x) \wedge \{ \sim I(x) \vee \sim P(x) \}]$, 그리고 [조건2] $\equiv \exists x \exists y [Ct(x) \wedge BS(y) \wedge \sim \{L(x) \vee R(y)\}] = \exists x \exists y [Ct(x) \wedge BS(y) \wedge \{ \sim L(x) \wedge \sim R(y) \}]$ 가 된다. 따라서 [문4]의 논리적 의미 관계는 이렇게 풀린다.

[문6]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or not*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if the cattle are *not* less than 30 months of age, *and*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not* been removed.

사람의 식용으로 검사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못한 소의 모든 사체 부위도 그 소가 월령 30개월 미만이 아니고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역시 금지된다.

3) “P25. $\sim(p \vee q) \equiv (\sim p \cdot \sim q)$ / P26. $\sim(p \cdot q) \equiv \sim p \vee \sim q$ (여훈근 178). 여훈근의 \cdot 는 필자의 \wedge 와 같은 논리 기호임.

그러므로 금지되는 경우는 [표3] 플로우차트의 ②가 된다.



1. 세로선은 \wedge , 가로선은 \vee 의 관계를 나타냄.
2. 굵은 선이 금지의 조건들을 따르는 논리회로임.
3. 점선 표시는 문장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뜻임.

[해설] 소 사체는 검사받은 경우와 검사받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검사받은 경우는 다시 합격한 경우와 합격하지 못한 경우로 나뉜다. [조건1]을 통과한 다음에는 다시 월령 30개월 미만과 30개월 이상으로 나뉜다. 그리고 30개월 이상인 경우는 다시 뇌와 척수를 제거한 경우와 제거하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조건2]까지 통과한 경우는 금지의 조건들을 충족시킨 ②뿐이다.

[표3] 플로우차트

2.2.2 부울의 법칙에 의한 해석

2.1.2의 결과 [조건1]과 [조건2]는 소의 모든 사체 부위가 금지되는 조건들이므로, 관계대명사로 표시된 [문3]의 [조건1]은 if절로 풀어써도 의미론적 차이가 없다.

[문7] The carcass of cattle is also prohibited [조건1][if (the cattle ar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조건2][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

이것은 두 개의 조건 구문이 반복되어 있는 “중첩(stack)ing) 4)의 경우이다. 이때 [조건1]은 문장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의미론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건2]를 영향권 아래에 둔다. 따라서 [조건1]과 [조건2]는 동시 충족에 의해서만 금지의 참된 조건이 되므로, 두 조건간의 관계는 $[조건1] \wedge [조건2]$ 이다. 즉 [문7]의 논리적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조건언 $p \rightarrow q$ 에서 $p \equiv \exists x \exists y [Ct(x) \wedge BS(y) \wedge \{\sim I(x) \wedge \sim P(x)\} \wedge \{\sim L(x) \vee \sim R(y)\}] \equiv \exists x \exists y [Ct(x) \wedge BS(y) \wedge \{\sim I(x) \vee \sim P(x)\} \wedge \{\sim L(x) \wedge \sim R(y)\}]$ 이다. 그런데 부울대수의 결합법칙(associative law)에 의하면, $p \wedge (q \wedge r) \equiv (p \wedge q) \wedge r$ 이다. 위의 조건 p에서 결합법칙의 p, q, r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sim I(x) \vee \sim P(x)\}$, $\sim L(x)$, $\sim R(y)$ 이므로, 이를 대입하여 연산하면 $p \equiv \exists x \exists y [Ct(x) \wedge BS(y) \wedge \{\sim I(x) \vee \sim P(x)\} \wedge \{\sim L(x) \wedge \sim R(y)\}] \equiv \exists x \exists y [Ct(x) \wedge BS(y) \wedge \{\sim I(x) \vee \sim P(x)\} \wedge \{\sim L(x) \wedge \sim R(y)\}] \equiv \exists x \exists y [Ct(x) \wedge BS(y) \wedge \{\sim I(x) \vee \sim P(x)\} \wedge \{\sim L(x) \wedge \sim R(y)\}]$ 가 된다.

이를 일반 언어로 환원하면, 소 사체가 동물 사료로 금지되는 조건은

검사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월령 30개월 미만인 아니면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이다. 그러므로 금지되는 경우는 [표3]의 ②가 된다.

그런데 분배법칙(distributive law)에 의하면 $p \wedge (q \vee r) \equiv (p \wedge q) \vee (p \wedge r)$ 이므로, 위 p를 한번 더 풀면 $p \equiv \exists x \exists y [Ct(x) \wedge BS(y) \wedge \{\sim I(x) \wedge \sim L(x) \wedge \sim R(y)\} \vee \{\sim P(x) \wedge \sim L(x) \wedge \sim R(y)\}]$ 가 된다. 이를 일반 언어로 전환하면, 금지의 조건은

소가 검사받지 않고 30개월 미만인 아니고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또는 합격하지 않고 30개월 미만인 아니고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4) “조건 구문이 반복된다 함은 if구절이 문장성분 위계내의 연속된 층위들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앞의 조건절]은 제 1층에서 작용하여 문장 나머지 부분에 걸쳐 영향권을 갖는다. 반면, [뒤의 조건절]은 제 2층에서 작용하여 [주절]을 한정한다. 이와 같은 반복을 ‘중첩’(stacking)이라 한다 (Huddleston 760). ([] 부분은 원문의 예문에 상응하는 일반화된 개념으로 필자에 의한 것임.)

5) “P18. $(p \cdot (q \cdot r)) \equiv ((p \cdot q) \cdot r)$ (여훈근 177).

6) “P21. $(p \cdot (q \vee r)) \equiv ((p \cdot q) \vee (p \cdot r))$ (여훈근 177).

가 된다. 이를 [표3]에서 확인하면, 금지의 경우는 “소 사체 에서 갈라지는 왼쪽 회로($\sim I(x) \wedge \sim L(x) \wedge \sim R(y)$), 또는 오른쪽 회로($\sim P(x) \wedge \sim L(x) \wedge \sim R(y)$)를 거쳐서 ②에 도달하게 된다.

2.3 올바른 번역문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문1]의 조건언 $p \rightarrow q$ 는 다음과 같이 술어 논리로 정리된다.

$$\forall z \exists x \exists y [Ct(x) \wedge Cc(z) \wedge [(BS(y) \wedge \{\sim I(x) \wedge \sim L(x) \wedge \sim R(y)\} \vee \{\sim P(x) \wedge \sim L(x) \wedge \sim R(y)\}) \rightarrow H(z)]]$$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논리관계에 부합하는 번역문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1. 사람의 식용으로 검사받아 합격한 경우가 아닌 소의 모든 사체 부위도 그 소가 월령 30개월 미만이거나 뇌와 척수가 제거된 경우가 아니라면 역시 금지된다. ([문4]-[문5]의 번역)
2. 사람의 식용으로 검사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못한 소의 모든 사체 부위도 그 소가 월령 30개월 미만이고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역시 금지된다. ([문6]의 번역)
3. 소가 사람의 식용으로 검사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월령 30개월 미만인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의 모든 사체 부위도 역시 금지된다. ([문7]의 번역)
4. 소가 사람의 식용으로 검사받지 않고 30개월 미만인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또는 합격하지 못하고 30개월 미만인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의 모든 사체부위도 역시 금지된다. ([문7]의 번역)

2.4 기존 번역들의 오류와 원인

[문1]에 대한 정부의 오역을 이른바 바로잡는다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번역문들이 여러 매체들에 실렸는데, 그것들은 결국 다음 몇 가지 형태로 집약된다.

또한 필자가 그밖에 보게 된 여러 비공식적인 번역들의 오류도 마찬가지다. 밑줄은 잘못 번역된 부분임을 나타내는 필자의 표시이다.

<1> 30개월 미만(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혹은 뇌와 척수를 제거한(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 소가 아니라면 (unless), 도축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소는 사료로 금지 [지]된다. (송기호 번역, 『프레시안』 2008.05.10.)

(1) 밑줄친 부분에 의하면, [표3] 플로우차트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합격하지 못하여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경로가 누락된다. 법령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도축검사대 앞에 섰지만 통과하지 못한 월령 30개월 이상의 주저앉은 소 사체를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고 다른 동물에게 먹이는 행위가 금지의 조건에서 배제된다. 이 점은 영어 원문과 다르다.

(2) 오류의 원인은 번역자가 “not inspected and passed 를 풀 때 “not 을 조건의 두 요소 모두에 적용하기는 했지만 논리적 연결사 “and 를 or로 바꿔주지 못한 연산상의 잘못으로 추정된다.

(3) 기사에는 곧 이어서 “의역 으로 “30개월 미만 혹은(or) 뇌, 척수를 제거한 소는 주저앉은 소라도 사료로 쓸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주저앉은 소 라고 하면 검사받았지만 합격하지 못한 소이다. 그런데 (1)에서 보았듯이 위 번역문에 의하면 그러한 소는 금지의 조건으로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월령과 무관하게, 그리고 뇌와 척수의 제거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의역 은 비록 영어 원문과 관련해서는 옳지만 위 번역문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이는 금지의 조건들을 경우별로 나누어 보도 자료에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명시해놓은 2008년 4월 25일자 법령 자체를 참고한 데서 비롯된 “의역 이 아닐까 하고 추정된다.

<2> [1]30개월 미만이 아니거나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2]도축검사를 받지 않고 식용으로 통과되지 않은 소는 동물사료로 금지된다. (번역자 미상, 『매일경제』 2008.05.13.)

(1) 밑줄친 [1]은 30개월 미만인 아니라면 [표3]에서 ②③의 경우를 포함하게 되고, 또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②④의 경우를 포함하게 된다. 즉 ②③④의 경우를 금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30개월 이상이면서 뇌와 척수를 제거한 소(③)와 30개월 미만이면서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은 소(④)를 아울러 금지하게 된다. 법령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③④에 해당하는 축산업자를 법적 근거 없이 처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2) 밑줄친 [2]에서는 검사받지 않은 경우를 놓고 통과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2.1.3에서 살펴보았듯이 통과 여부는 검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검사받았지만 통과되지 않은 경로가 누락된다. 이 부분의 문제는 <1>의 (1)과 같다.

(3) 오류 [1]의 원인은 unless절을 풀 때 “unless 에 의미상으로 포함된 not 을 조건의 두 요소 모두에 적용하기는 했지만 논리적 연결사 “or 를 and로 바꾸지 못한 연산상의 잘못으로 추정된다.

(4) 오류 [2]의 원인은 <1>의 (2)와 같이 추정된다.

(5) 이 기사에서도 곧 이어서 “다시 말해 이는 30개월 미만 혹은 뇌와 척수를 제거한 소는 도축 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다는 “해설 을 덧붙여 놓았다. 이 “해설 에 따르면, [표3]에서 ③④⑤의 경우를 쓸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위 번역문에 따르면 (1)에서 보았듯이 금지되는 경우가 ②③④이므로 쓸 수 있는 경우는 ①⑤가 된다. 따라서 이 “해설 도 비록 영어 원문과 관련해서는 옳지만 위 번역문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이는 <1>의 (3) “의역 과 마찬가지로 2008년 4월 25일자 법령 자체를 참고한 데서 비롯된 “해설 이 아닐까 한다.

<3> [1]소가 30개월 미만 나이가 아니거나, 뇌와 척수가 이미 제거되지 않았다면 [2]식용으로 검사 받고 합격하지 않은 소의 모든 부위는 (동물사료로) 금지된다. (곽중철 번역, 「매일경제」 2008.05.31. “unless가 even though? 쇠고기협상 망신살)

(1) 밑줄친 [1]의 문제는 <2>의 (1)과 같다.

(2) 밑줄친 [2]에서는 검사받지 않은 경로가 누락되어 있다. 왜냐하면, “검

사 받고 합격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받았지만 합격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이다.7) 법령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검사받지 않고 죽은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 사체를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고 다른 동물에게 먹이는 행위를 금지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3) 오류 [1]의 원인은 <2>의 (3)과 같다.

(4) 오류 [2]의 원인은 번역자가 “not inspected and passed 에서 조건의 두 요소가 동시에 “not 의 영향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기는 한데, 영어의 통사구조에 우리말 어휘만 기계적으로 대입하여 “and 를 “~고 라고 옮겼을 뿐 그때 양쪽 언어간에 생기는 의미 관계의 차이를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세 번역문들은 영어 원문과 비교할 때 논리적 의미 관계의 오류를 일부 포함한 채 부분적으로 합치한다. 그렇다면 그 유효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다음 인용문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7) “검사 받고 합격하지 않은 소 라는 우리말 표현은 ①“{(i검사받고 ii합격하지) 않은} 소 (검사받고 합격한 소를 제외한 나머지 소)와 ②“{(i검사받고) (ii합격하지 않은)} 소 (검사받았지만 합격하지 않은 소)의 통사론적 중의성을 가지며, 의미론적으로도 중의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우리말 표현은 다음과 같이 경우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크다.

1. 동사i과 동사ii가 우발적 동시관계라면, ①의 가능성이 ②보다 더 크다. 예) “차타고 오지 않은 손님 : ①“{(차타고 오지) 않은} 손님 (차타고 온 손님이 아닌 나머지 손님) > ②“{(차타고) (오지 않은)} 손님 (차만 탔을 뿐 오지는 않은 손님)
2. 동사i.과 동사ii.가 순차적 인과관계라면, ①보다 ②의 가능성이 더 크다. 예) “밥먹고 돈내지 않은 사람 : ①“{(밥먹고 돈내지) 않은} 사람 (밥먹고 돈낸 사람이 아닌 나머지 사람) < ②“{(밥먹고) (돈내지 않은)} 사람 (밥만 먹고 돈은 내지 않은 사람)

“검사 받고 합격하지 않은 소 는 2.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①“검사받아서 합격한 소가 아닌 나머지 소 의 의미보다 ②“검사받았지만 합격하지 않은 소 의 의미로 읽힐 가능성이 더 크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이는 중의성이 없도록 의미를 명확하게 옮긴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①의 뜻이 되도록 하려면, “검사받아 합격한 경우가 아닌 소 라고 하면 될 것이다.

시사해준다고 할 것이다.

논리학에서 사용되는 이와 같은 기본적 방법론에는 ‘거의’나 ‘얼추’ 같은 것은 없다. 즉 발화문이 일정한 상황을 기술하면,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해 참이거나 아니면 참이 아니라서 거짓이거나 둘중 하나인 것이다. (Saced 293)

번역문도 하나의 발화문으로서 영어 원문이라는 일정한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논리적 의미 관계면에서 어떤 번역이 거의 맞는다는 판단은 유효하지 않다.

3. 마치는 말

정부가 [문1]을 오역하게 된 원인을 진단하는 기사도 있었다.

통·번역계 권위자인 광중철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교수에게 물었다. 관보 오역 사건의 원인에 대해 광 교수는 ‘한마디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번역사와 언어 지식이 부족한 관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며 ‘이 분야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08.05.31. “한·미 쇠고기 협상 관보 번역 잘못 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번역사는 문맥상 “이 분야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 을 뜻한다. 즉 “전문 지식 이란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을 뜻하는데, “이 분야 가 어떤 분야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현 상황에서 미국의 동물사료법 분야를 가 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인용문은 동물사료법 분야에 정통한 전 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문장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 디는 뜻 으로 정리된다.

정부 관리가 충분한 언어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면 매우 좋았을 것이며 애초에 번역사가 필요하지도 않았겠지만, 관리에게 충분한 영어 능력을 기대하

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오히려 관리에게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더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번역사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정통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번역사가 그러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만약 그것이 오역을 낳는 일차적 원인이라면 그러한 오역에서 벗어날 번역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번역사가 오역을 방지하기 위해 갖추면 더 좋겠다는 전문 지식도 번역에 필요한 만큼이면 되지 꼭 정통한 지식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역시 관리는 관리답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하고, 번역사는 번역사답게 충분한 언어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서로 공조하여 일을 하면 오역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영어 능력이 부족한 관리가 직접 [문1]을 번역했거나, 번역사에게 의뢰해놓고도 전문 지식이 부족한 번역사가 번역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관리에게 요청했을 때 그 지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오역의 책임은 관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오역의 책임은 온전히 번역사에게 있게 된다. 그렇다고 정부에게 오역 파문의 행정 관리적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번역 자체의 책임 소재는 그렇다는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1]의 논리적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데 미국의 동물사료법에 대한 대단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상식 수준의 지식과 보도 자료문의 전체 문맥에 나타난 정도의 지식만으로도 족하다.

번역자가 번역상의 오류를 저지르게 되는 일차적 원인은 역시 언어 능력의 부족이다. 궁극적으로는 베스넷(Susan Bassnett)의 말대로 “두 언어간에 동일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 (30)을, 그리고 출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의 차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번역불가능성 (32)의 문제를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원문이 지닌 논리적 의미 관계를 정확히 옮겨주는 정도의 번역을 하는 데 필요한 언어 능력이란 결국 출발언어에 대한 독해력과 목표언어에 대한 표현력인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양쪽 언어의 의미 관계가 일치하는가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번역능력이란 다시 말해서 적어도 두 가지 개별 언어적 능력과 이 두 가지 언어 능력을 연결시키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지팡신 23) 있기 때문이다. 논리적 의미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흔히들 하는 말로 하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간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문1]의 unless~(~하지 않는다면)을 even if~(~하더라도)로 혼동한 것만

바로잡는다고 올바른 번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을 돌이켜보면, 출발언어에 대한 독해력과 목표언어에 대한 표현력의 요건들은 양쪽 언어에 대한 충분한 통사론적 이해, 의미론적 이해, 그리고 논리적 의미 관계의 파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1]은 법적 성격의 발화문이라서 심리적 의미가 비교적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상과 같은 요건들로 일단락될 수 있을지 모른다. 다른 성격의 문장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종 수사법과 감수성 등등의 문학적 요건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건들을 이 논문에서처럼 의식적으로 따져서 적용하느냐 아니면 직관적으로 적용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번역자가 의식적으로든 직관적으로든 이러한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고서 실제로 적용하여 올바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언어 지식은 언어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지만, 그 자체가 언어 능력은 아니다. 언어학자라면 모를까 번역자에게 더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체질화된 능력이다. 그것이 직관적으로 안 된다면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길러야 한다.

그런데 필자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어 교육의 현 상황을 경험적으로 가늠해보면, 이와 같은 요건들을 갖춰주는 데 필요한 과목들은 편협한 효용성(utility)을 참된 유용성(usefulness)으로 혼동하는 이른바 실용영어 교육의 명분하에 갈수록 배제되고 있다. 그러고서도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영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문1]은 길이도 비교적 길지 않고, 문장의 골격도 간단한 흔히 말하는 수동태 2형식밖에 안 되며, 사전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어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네 개의 조건 요소가 일정한 관계 속에서 첨가된 것이다. “FDA 보도자료가 난해한 영문도 아니고 “중학영어 (『경향신문』 2005.05.12.) 정도의 영문이라면 서,⁸⁾ 이에 대해 그것도 오역을 바로잡겠다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번역과 해석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무슨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제시된 논리적으로 정확한 정도의 번역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도 새로운 것이 거의 없는 사항들일 것이고, 원칙으로서야 대부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또 필

8) 필자의 견해로, 우리나라 중학영어의 수준은 좀 넘는 것 같다.

자가 해석해낸 문장이 무슨 대단한 수준의 문장도 아닐 것이며, 분석에 적용한 이론적 원리들도 기초적인 것들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요건들이 막상 번역과 해석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영어 교육 현장에서도 갈수록 도외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 논문이 우리의 영어 현황이 지닌 구체적인 문제점을 알리고 아울러 올바른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 논문의 의의라면 바로 이와 같은 시의성(時宜性)일 것이다.

참고문헌

- 여훈근. 1999. 『현대논리학』. 서울: 민영사.
- 이익환. 2002. 『영어의미론(English Semantics)』. 서울: 한국문화사.
- 지광신, 최경은, 권선형 옮김. 2003. 『번역의 언어학적 문제』. 서울: 한국문화사.
(Diller, Hans-Jürgen, und Joachim Kornelius. 1978. *Linguistische Probleme der Übersetzung*. Tübingen: Niemeyer.)
- Bassnett, Susan. 1991. *Translation Studies*. Rev. ed. London: Routledge.
- Curme, George O. 1931. *Syntax*. Boston: D. C. Heath.
- Declerck, Renaat. 1991. *A Comprehensive Descriptive Grammar of English*. Tokyo: Kaitakusha.
- Harrison, Frank R., III. 1992. *Logic and Rational Thought*. St. Paul, MN: West Publishing.
- Huddleston, Rodney, and Geoffrey K. Pullum, eds.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P.
- Jespersen, Otto. 1956.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 Oxford English Dictionary*. 2002. CD-ROM. 2nd Edition. Ver. 1.13.
- Saeed, John I. 2003. *Semantics*. 2nd ed. Malden, MA: Blackwell.
- 경향신문 . 2008.05.12. “중학영어도 모르고 쇠고기 협상?...野 ‘오역과문’ 추궁.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1&articleid>

=2008051215404461340&newssetid=468

「노컷뉴스」. 2008.05.02. “美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1-5>. <http://www.cbs.co.kr/nocut/info/?NewsCD=817584>

「매일경제」. 2008.05.13. “쇠고기 협상 오역 진실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308888>

「매일경제」. 2008.05.31. “unless가 even though? 쇠고기협상 망신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347763>

「매일경제」. 2008.05.31. “한·미 쇠고기 협상 관보 번역 잘못 왜? <http://news.co.kr/newsRead.php?year=2008&no=347764>

「프레스시안」. 2008.04.25. “검역 주권은 어떻게 양도되었나? http://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425090320&s_menu=경제

「프레스시안」. 2008.05.10. “<100분 토론> 해석 공방...송기호가 옳았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10171038&s_menu=경제

CVM Update. <http://www.fda.gov/cvm/UpdateBSerevised.htm>

FDA News. <http://www.fda.gov/bbs/topics/NEWS/2008/NEW01823.html>

[Abstract]

**A Logical Interpretation of an English Sentence in the April 23, 2008
U. S. FDA Press Release**

Yoon, Hyonyung
(Dankook University)

On April 23, 2008, U. 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ssued a press release on its website briefing the purport of the final rule on animal feeds with added safeguards against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The regulation was to prohibit the use of certain cattle materials in all animal feeds. And one of the English sentences in the release aroused a nation-wide debate in Korea next month with regard to its translation into Korean. Criticisms of its mistranslation conducted on the governmental level adorned major Korean mass media, followed by the experts' suggestions for the "right translation.

However, since none of them are really up to being "right, I have taken on this issue to provide a logical analysis leading to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sentence and diagnosing the cases of its mistranslation into Korean. Thus I emphasize the translator's capability of performing correct logical operation to achieve an equivalence between the source language and the target language. In addition, this paper hopes to start a serious reflection on the drawbacks of the present English education in Korea, in an attempt to search for more comprehensive ways to get them over.

▶ Key Words: FDA, BSE, logic, semantics, translation, English education

윤희영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porterst@dku.edu

관심분야: 영시, 번역, 문학이론

논문투고일: 2008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08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10일